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연꽃이 그리는 향기, 무안 회산백련지

나는 조금 독특한 고등학교를 다녔다. 학교에는 불당이 있었고, 격주 토요일마다 듣는 교과목 중에는 불교 수업이 있었다. 우리 학교는 조계종에서 설립한 미션스쿨이었다. 내 종교가 불교이거나 이 방면에 특별히 뜻이 있어 이 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입학하고 보니 이 학교였을 뿐이다.

다행히 종교에 관한 강제성이 없었던 터라 학교에 대한 거부감도 없었다. 야외 수업 차 절이 있는 숲에 가는 것도 좋았고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고 자연을 숭배하는 불교의 가르침도 마음에 들었다.

매년 5월이면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준비로 온 학교가 들썩였다. 일정 중에는 학생들이 직접 연꽃등을 만들어 근처 절에 기부하는 행사도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친구들과 강당에 둘러앉아 수다를 떨며 한지로 연꽃등을 만들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내가 만든 연꽃 중에는 흰색도, 분홍색도 있었다. 내 고등학교는 비록 평범하지 않은 미션스쿨이었지만 덕분에 일찍이 종교의 교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자연과 친해지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고 심지어 연꽃에는 흰색과 분홍색 꽃잎의 종(種)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5년 전쯤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물 세밀화 강의를 하게 되었다. 무안까지 내려간 김에 1박 2일 동안 머물며 지역의 식물을 둘러보기로 결심하고 무안이 고향인 지인에게 내가 갈만한 장소를 물었다. 그는 곧바로 내게 회산백련지를 추천해 주었다.

무안을 방문하는 시기는 8월이었고 8월은 연꽃이 만개하는 계절이기에 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추천대로 회산백련지로 향했다.

회산백련지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백련 재배지로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축조한 저수지였으나 개발로 인해 정체성을 잃은 공간이 되자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마을 주민 정수동씨가 저수지 가장자리에 연뿌리 12주를 심었다고 한다. 그렇게 회산백련지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그후 지역 모두가 힘을 모아 백련을 가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백련 재배지가 된 것이다.

회산백련지에 다다르자 공기에서 진한 연꽃 향이 나기 시작했다. 불교에서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에서 피는 맑고 성스러운 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꽃 중에도 흰 꽃잎의 백련은 가장 깨끗한 존재, 연꽃 중의 연꽃으로 불린다.

불교의 '극락정토'에는 홍색, 청색, 황색, 백색의 다채로운 연꽃이 광채를 내며 피어 있다고 묘사되는데, 회산백련지에 빼곡히 핀 연꽃 풍경을 보며 이제야 그 풍경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백련지에는 연꽃 외에도 다양한 수생식물이 살고 있고 우리가 자연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극단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꽃에서는 묘한 향기가 난다. 꽃 향이란 대부분 한 가지 뚜렷한 향을 중심에 두는데 연꽃 향은 처음에 나는 향과 끝 향이 다르고, 여러 향이 겹겹이 블렌딩된 듯 형용하기 힘든 오묘한 향이다. 품종에 따라 향의 강도가 다른지 모르겠으나 내가 느끼기에 백련이 많은 구역에 다다를수록 향이 더욱 진해졌다.

향이라는 감각은 매우 강렬해, 나는 이제 연꽃의 연이라는 글자만 보아도 회산백련지에서 맡은 오묘한 연꽃향을 코 끝에서 느낄 수 있다.

불교에서는 수면 위에 고이 피어 있는 연꽃이 세상을 초월한 성자의 모습과 같다고도 하고, 연꽃의 잎과 꽃 표면에 맺혀 있던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은 근심을 떨쳐 버린 마음을 닮았다고 한다. 목재 데크 길을 따라 연꽃을 둘러보는 동안 서울에서 이곳까지 와 연꽃을 보는 스스로가 시공간을 초월한 기분마저 들었다.

회산백련지의 백련을 볼 땐 고등학교 시절 연꽃등을 만들던 내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 나는 어디에서든 연꽃을 만나면 회산백련지에서 맡았던 그 연꽃 향기를 떠올린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특정 장소, 사람 혹은 소재에 대한 기억과 감상을 새로운 경험으로 갱신시키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하여 자꾸만 식물을 찾아 나서고, 경험하고, 감각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치과에서의 감염 예방 관리

박 유 미
조선대치과병원 진료지원팀장

3년간의 코로나 펜데믹을 거쳤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전염병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자 적합한 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유행성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주기 치과병원 인증조사 기준법 '제8장 감염관리부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환경은 매일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의료 관련 감염 병원체들의 저장소가 될 수 있고, 환경에 남은 미생물들은 의료 감염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같이 병원내 깨끗한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감염 관리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치과진료실에서의 감염 관리는 진료실 환경 감염관리, 수관 감염관리, 표면 감염관리, 진료종사자의 감염관리, 의료기구 및 치과 치료장비의 감염관리, 세탁물 감염관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치과 영역은 특성상 날카로운 기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관혈적 치료가 많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환자의 입안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침이나 피가 묻기 때문에 소독이나 감염을 한층 철저히 해야 한다. 치과 치료의 필수적인 장비인 핸드피스는 공기압을 이용해 물을 분사하며 치료하는 기구로, 공기중에 떠 다니는 작은 액체 방울인 에어로졸이 발생하는데, 이 에어로졸은 박테리아나 곰팡이, 바이러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병원균의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모든 기구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확한 소독, 멸균법을 준수해 사용한다. 1회용 파우치를 이용해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1회용품은 1회 사용 후 폐기하는 등 감염관리학회 차원에서 치과 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2020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각 의료기관은 병원 차원의 감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감염관리란 의료기관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들도 치과치료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전신 질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환자에 대한 질환 정보를 알아야 진료실에서 예방적 조치(표면을 소독하거나 표면덮개를 이용)를 할 수 있고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 대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예방적 방법으로는 치과치료 전 잇솔질을 시행하고 병원을 방문한 뒤에는 치료전에 물로 입을 한번 헹구거나 항균 구강 세척제를 이용해 헹궈줌으로써 입안의 세균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손 위생,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지키고 무엇보다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나 타인을 동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창문을 수시로 여는 등 공기중 에어로졸의 농도를 줄이기 위한 일반 환기는 병원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진료실에서 감염관리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신경쓰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힘들며,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감염관리를 수행하는 것은 병원의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 즉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다. 조선대치과병원은 앞으로도 올바른 감염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기 고

국가 신성장의 관문, 무안국제공항

김 현 철
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지난 23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남송시대의 수도이자 1993년부터 전남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절강성(浙江省)의 성도(聖都)인 항저우(杭州)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 등과 함께 중국을 이끌어가는 중심도시다. 특히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를 비롯해 상업과 관광의 메카이자, 2022년 중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2위에 선정됐다.

중국 내 민영기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절강성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불과 188억 달러에 머물렀던 GDP가 2022년 1조 600억 달러로, 중국 경제를 이끄는 4대 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함께 동부 해안권 중심의 성장 정책과 맞닿으면서 최근에도 그 성장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절강성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수많은 현급 도시들의 역할이 뒷받침하고 있다. 전 세계 소상품(일용잡화) 유통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이우(義烏)시가 대표적이다.

가난한 농촌에 불과했던 이우시는 1980년 대만 기업 진출로 소상품을 생산한 이래 1995년 이우소상품박람회를 계기로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우시는 항저우로부터 120㎞, 물동량에서 부산항을 제친 영파항에선 180㎞ 거리에 위치해 있다. 2014년 고속철도 개통과 맞물려 유럽에 이르는 이우 서역(西驛)이 신설됨과 동시에 과거 군공항이던 이우공항이 국제노선 허가를 받게 됐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끄는 육·해·공 인프라가 완성됨으로써 이우시는 절강성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무안국제공항 간 정기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무역·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경학적 한계로 국가 성장축이 내륙 중심에서 해양으로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륙의 시작이자 해양의 시작인 국토 서남권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키는 한편, 신해양시대 국가 신성장의 핵심거점으로 무안국제공항의 역할을 배가시키는 혜안을 펼친 것이다. 미·중 간 힘겨루기가 쉽사리 끝나지 않는 시점에 김영록 전남지사의 강단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사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전남 지역공약 중 하나로 대한민국 관광·물류 4대 관문 공항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근 지역에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는 무안 일원에 한·중 간 공동으로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조성을 통해 항공물류단지를 비롯한 첨단바이오 및 통합 의학단지를 개발한다는 구상도 추진됐다. 다만 여러 연유로 그 결말을 맺지 못했던 터라 지역공약으로 제시된 현재, '실현'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질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이우시 사례에서 보았듯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은 육로, 철로, 해로까지 갖춰져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다. 전남도 또한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확보함과 동시에 우주항공, 해상풍력, 첨단바이오, 지능형농업 등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국 부침의 과거를 교훈 삼아 무안국제공항 중심의 서남권을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는 협력형 성장모델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전남, 나아가 동북아 신해양시대의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현 정부의 외침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공약으로 제시한 전남과의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줄탁동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 전남'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社 說

위기의 광주 제조업…특단의 지원책 필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광주지역 주력산업의 하나인 제조업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광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건설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가전업마저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지역경제 전반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가전업계의 위기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위니아전자의 사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는 광주에 공장을 두고 김치냉장고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7월부터 경영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생산라인 가동을 멈추다시피 했고 지금까지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만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전업계의 위기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가전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광주사업장의 생산 물량이 줄면서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수주 물량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다. 중견 협력업체의 경우 수주 물량이 40% 가량 줄었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영세한 협력업체는 도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광주 제조업의 위기가 가전업계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8로 8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제조업체 대표들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보다 2년 연속 더 많다는 것으로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제조업체의 60% 가량이 올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력 제조업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 지역 제조업체는 자금 조달에 있어 어려움이 큰 만큼 정부나 지자체가 수출 금융 및 물류비 지원과 세제 개선 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교권 침해 상담할 전담변호사가 없다니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넘어 교권 침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의 교권 침해를 상담해줄 전담변호사가 소수이거나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 전담변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광주시교육청에 소속돼 근무 중인 교권 전담변호사는 두 명뿐이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교권 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권 전담변호사는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교권 전담변호사를 두 명 확보한 광주에서 이뤄진 교권 관련 법률 상담 건수는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649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 2020년 628건이던 것이 2021년 796건, 2022년에는 8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2020년 141건, 2021년 147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2022년부터는 전담변호사가 없어 아예 상담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계 기관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담변호사를 충원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교권과 교육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無 等 鼓

이등병의 편지

모든 문화가 그렇지만 음악만큼 시대와 밀접한 장르도 없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들은, 당시 들었던 음악을 통해 그 시절의 풍경을 떠올리며 '어느 한 때'를 동시에 추억한다.

제목은 몰라도 누구나 들어봤을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3악장'을 들으면 세대마다 다른 장면을 떠올릴듯하다. 중장년 세대는 일요일 아침, 차인태 아나운서의 '장학퀴즈'가 자연스레 생각날 테고, 젊은 세대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장면을 그려보지 않을까. 초등학생들은 유재석이 출연하는 학습지 광고를 떠올리며 "공부하기 싫어"를 외칠지도 모른다.

군대하면 연상되는 노래 역시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대학시절 군대 가는 친구들의 환송식 때면 다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 "정든 우리 헤어져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최백호의 '입영전야'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 주기 싫어서"로 시작되는 김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을 것 같다. 가수 윤상이 만든 이 곡은 오랫동안 이별을 앞둔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아마도 가장 생명력이 긴 곡은 '이등병의 편지'가 아닐까. 이 노래를 처음 들은 건 1990년 구입한 '겨레의 노래 1' LP 음반을 통해서다. 김민기가 제작한 이 음반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 이는 전인권이었다. 뭐니뭐니해도 이등병의 편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故) 김광석을 떠올릴 것이다. 이 노래는 그의 '다시 부르기' 앨범에 실리며 인기를 모았고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면서 전 세대가 사랑하는 곡이 됐다.

이등병의 편지가 발표된 지 40년이 됐다. 이 곡은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작곡한 가수 김현성이 1983년 입대하는 친구를 서울역에서 배웅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든 곡이라고 한다.

정말 오랜만에 전인권 버전의 이등병의 편지를 듣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 시절로 돌아가 애틋해졌다.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서 보듯, 이등병의 편지가 불리워진 40년 동안 '군대'라는 단어가 주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 감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 같아 왠지 마음이 무겁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전 남 본 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